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성열훈*, 김성수**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Employ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Programs for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Youl-Hun Seung*, Sung-Soo Kim**

요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후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충북 소재 1개 대학교의 보건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후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아진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었으나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향후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적응을 높이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학과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보건의료전공, 취업역량강화,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구조방정식

Abstract The study conducted an employ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program targeting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and then carried out positive analysis to find out how satisfaction affec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An employ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program was conducted which targeted health related majors at a university located in Cheongbuk, and information on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for the employ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program, the better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hile increas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ffected academic achievement. Although the employ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program had no direct relationship of influence to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y shows that it does lead to increased academic achievement by way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which ends up as a positive affect for future employment. Therefore, active efforts are necessary to revitalize employment related programs tha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in order to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revitalizing employment and increas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Key Words : Healthcare Related Majors, Employment Capability Reinforcem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

1. 서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에 의하면 실업률이 2.9%로 전년 동월대비 0.1% 감소하였다. 실업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5%로 높게 나타났다[1].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증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조교수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1월 1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1일, 확정일: 2013년 2월 20일

가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세계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함으로써 청년 노동인구의 증가와 질적 저하가 원인이다 [2]. 따라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학생본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3]. 대학생 시기는 최초로 구체적인 미래 진로에 대한 선택과 준비를 하는 시기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4]. 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 취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전문자격증 등의 취득으로 취업에 필요한 스펙(spec: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조건)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5]. 선행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전공계열이 보건의료 계열인데, 이것은 졸업 후 취업률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6]. 또한 김계은 등[7]의 연구에서도 전공계열별 만족은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과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전공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열의 학과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간호(학)과가 전국에 3년제 148개 대학(입학정원 12,858명)과 4년제 141개 대학(입학정원 8,889명)에 신설되어 있다. 보건학과는 3년제 266개 대학(입학정원 13,299명)과 4년제 98개 대학(입학정원 3,276명)에 신설되었다[8]. 이들은 국가고시를 통하여 전문 보건의료 인력으로 배출이 되지만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9].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과정으로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함양시켜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도구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이용하여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10, 11]. 대표적인 취업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에서는 미국심폐소생협회에서 발급하는 기본인명 구조술자격증(Basic Life Support, BLS-Provider)이 있다[12]. 의료라는 특수성은 응급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서의 심정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한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이 일어난다. 환자발생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조기 심폐소생술의 시행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계열학과에서 기본인명

구조술자격증 취득을 선호한다. 방사선학과에서는 2013년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일반면허가 있다[1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전력 원자력 직군, 한수원 원자력 직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핵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KOPEC) 등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산업체, 의료기기업체(연구, 개발, 영업), 비파괴 검사 기술 분야의 산업체, 방사선 의료장비회사, 원자력 발전소 등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는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응급처치 강사과정(emergency care instructor)이 있다[14].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의 전문응급처치 강사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응급처치원 과정을 직접 개설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지도하고 교육시켜 실질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외부 출강(대학 또는 민방위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자격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수준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취업까지의 과정중의 하나인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이고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만족도를 분석하고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만 한정된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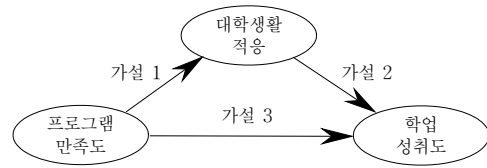
첫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참여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실태를 알아본다. 둘째, 이들의 총체적인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취업역량강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

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3년제 대학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중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69명을 제외한 231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2.2 측정도구

2.2.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5]가 개발한 대학생 적응 질문지(Student Adjustment to collage Questionnaire : SACQ)를 허재홍과 조용래[16]가 번안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학업적응 24 문항, 사회적응 16문항, 개인정서적응 17문항, 대학환경 10문항으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사이에 답하도록 하였다. 부정문으로 질문한 34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측정하였다.

2.2.2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만족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보건관련 학과 특성에 맞게 대표적인 과정을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위하여 측정하고자 이성훈[17]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반응평가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고 보건계열 관련학과 교수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문항을 개발하였다.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학업성취도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후 학기의 전체 평점 평균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A+에서 F까지 9등급으로 조사하였으며 평점평균이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2.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보건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이에 따르는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한 가설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2.4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4개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신뢰도 계수가 각각 0.841, 0.730, 0.807, 0.808 이었고 모두 기준치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신뢰도에 이상이 없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통계분석에 모두 사용하였다. 요인의 적재값 크기가 0.6이상으로 변수들의 구성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2.5 분석방법

SPSS의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관련 요인간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AMO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CFI, TLI, NFI, RMSEA를 이용하였다. 카이제곱값은 사례 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뢰성이 다소 낮으나 분석에 제시하였다. GFI, CFI, TLI, NFI는 0인 경우 전혀 적하지 않고, 1인 경우 완전히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9

〈표 1〉 측정요인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변 수	Item	Mean	SD	Eigen Value	Cronbach's α
대학생활적응	67				
학업적응	24	3.045	0.387	5.434	0.841
사회적응	16	3.143	0.427	3.609	0.730
개인정서적응	17	2.840	0.512	4.824	0.807
대학환경	10	3.206	0.633	3.825	0.808
프로그램의 만족도	11	3.708	0.615	5.588	0.883

이상 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RMSEA는 0.05 이하면 좋은 모형이며, 0.8이하면 적절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18].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전문응급처리 프로그램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응은 RI 프로그램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은 전문응급처리 프로그램 그룹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과는 방사선, 간호, 치위생, 응급구조학과로 각각 25.97%, 21.65%, 40.26%, 12.1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계속구강 관리가 40.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응급처치 15.58%, BLS 12.55%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들의 특성상 남학생이 19.91%로 여학생 50.09%보다 적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9.83%로 가장 많이 참석하였으며 3학년 37.66%, 2학년 22.51% 순이었다. A학점 이상인 학생은 38.96%, B학점은 40.69%, C학점 이하인 학생은 20.35%로 나타났다. 휴학을 경험한 학생은 5.63%, 군복무경험이 있는 학생은 9.96%, 사회생활경험이 있는 학생은 35.93%, 타 대학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63%로 분석되었다. 거주형태는 주로 기숙사가 60.17%로 가장 많았다. 통학거리는 10분 이내가 64.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경제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4%이었다. 등록금 조달은 77.06%가 부모님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비교

일반적 특성별로 대학생활 적응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구조학과 대학생활 적응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학 과	방사선학과	60	25.97
	간호학과	50	21.65
	치위생학과	93	40.26
	응급구조학과	28	12.12
	RI	24	10.39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응급처치	36	15.58
	BLS	29	12.55
	이혈요법	21	9.09
	계속구강관리	93	40.26
	전문응급처치	28	12.12
성 별	남자	46	19.91
	여자	185	80.09
학 년	1학년	92	39.83
	2학년	52	22.51
	3학년	87	37.66
학 업 성 취 도	A학점	90	38.96
	B학점	94	40.69
	C학점 이하	47	20.35
	휴학경험	218	94.37
군 복 무 경 험	없다	13	5.63
	있다	208	90.04
	있다	23	9.96
	사회생활 경험	148	64.07
타 대 학 교육경험	없다	83	35.93
	있다	218	94.37
	기숙사	139	60.17
	자취	13	5.63
거주형태	자가(통학)	79	34.20
	10분 이내	150	64.94
	30분 이내	23	9.96
	1시간 이내	45	19.48
통학거리	1시간 이상	13	5.63
	상	17	7.36
	중	127	54.98
	하	87	37.66
경제수준	부모님 지원	178	77.06
	스스로 충당	27	11.69
	학교 장학금	10	4.33
	외부 장학금	16	6.93
출신고교	인문계	122	52.81
	실업계	109	47.19
입학형태	수시전형	119	51.52
	정시전형	80	34.63
	특별 및 농어촌	32	13.85
전 체	231	100.00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비교

구 분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프로그램 만족도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학 과	방사선	3.126±.409		3.268±.415		2.934±.616		3.360±.635		3.702±.548	
	간호	3.028±.399	9.800***	3.058±.503	5.868***	2.785±.486	2.875*	3.174±.547	11.026***	3.533±.649	4.004**
	치위생	2.920±.332		3.052±.376		2.756±.417		2.987±.621		3.712±.547	
	응급구조	3.317±.312		3.326±.353		3.017±.552		3.661±.490		4.026±.788	
취 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RI	3.194±.355		3.332±.391		2.843±.634		3.342±.576		3.883±.452	
	응급처치	3.081±.440		3.226±.431		2.995±.605		3.372±.679		3.581±.578	
	BLS	2.974±.462	6.485***	3.029±.457	3.764**	2.722±.476	2.199	3.117±.632	6.709***	3.755±.693	5.265***
	이혈요법	3.103±.284		3.098±.570		2.871±.499		3.252±.401		3.225±.433	
	계속구강관리	2.920±.332		3.052±.376		2.756±.417		2.987±.621		3.712±.547	
전문응급처치	3.317±.312		3.326±.353		3.017±.552		3.661±.490		4.026±.788		
성 별	남자	3.308±.383	5.469***	3.400±.384	4.779***	3.193±.526	5.544***	3.711±.541	6.576***	3.858±.614	1.850
	여자	2.980±.360		3.079±.414		2.753±.471		3.081±.591		3.671±.611	
학 년	1학년	2.986±.399		3.135±.426		2.846±.514		3.202±.682		3.747±.522	
	2학년	2.964±.298	6.017**	3.086±.333	.906	2.766±.493	.801	2.927±.544	8.788***	3.617±.589	.774
	3학년	3.156±.398		3.185±.476		2.879±.523		3.377±.572		3.722±.715	
학 업 성 취 도	A학점	3.181±.396		3.209±.424		2.899±.550		3.331±.674		3.800±.633	
	B학점	3.022±.301	14.606***	3.135±.445	2.724	2.808±.473	.968	3.188±.500	4.356*	3.697±.616	2.507
	C학점 이하	2.830±.419		3.031±.378		2.793±.514		3.002±.739		3.555±.554	
휴 학경험	없다	3.033±.384		3.129±.430		2.831±.511		3.185±.633		3.687±.610	
	있다	3.244±.393	-1.917	3.376±.291	-2.038	3.005±.536	-1.190	3.554±.549	-2.053*	4.063±.602	-2.157*
군 복 무 경 험	없다	3.005±.364		3.111±.418		2.795±.484		3.139±.607		3.666±.604	
	있다	3.409±.403	-5.007***	3.425±.411	-3.418***	3.253±.584	-4.218***	3.813±.543	-5.104***	4.095±.589	-3.242**
사 회 생 활 경 험	없다	3.003±.382		3.130±.425		2.849±.517		3.141±.642		3.635±.603	
	있다	3.120±.385	-2.239*	3.164±.432	-576	2.825±.507	.341	3.323±.602	-2.117*	3.839±.617	-2.444*
타 대 학 교 육 경 험	없다	3.029±.375		3.136±.424		2.814±.493		3.173±.614		3.710±.603	
	있다	3.314±.481	-2.616**	3.249±.488	-925	3.285±.644	-3.289	3.754±.725	-3.279**	3.678±.816	.138
거주 형태	기숙사	3.046±.386		3.162±.398		2.828±.485		3.197±.591		3.653±.580	
	자취	3.218±.522	1.551	3.207±.418	.735	3.045±.527	1.102	3.500±.913	1.528	3.874±.893	1.541
	자가(통학)	3.015±.359		3.097±.478		2.828±.555		3.173±.648		3.778±.617	
통학거리	10분 이내	3.077±.411		3.183±.409		2.840±.509		3.253±.621		3.701±.599	
	30분 이내	2.967±.252	1.311	3.074±.401	1.352	2.890±.544	.164	3.043±.461	1.290	3.719±.607	.027
	1시간 이내	3.021±.351		3.051±.496		2.805±.501		3.193±.662		3.729±.645	
	1시간 이상	2.901±.387		3.116±.402		2.878±.585		2.992±.875		3.699±.765	
경제수준	상	3.145±.276		3.121±.361		3.083±.330		3.282±.643		3.620±.847	
	중	3.046±.406	.680	3.114±.427	.799	2.884±.537	4.531**	3.206±.665	.144	3.709±.622	.205
	하	3.025±.377		3.188±.439		2.730±.482		3.192±.588		3.725±.556	
등 록 금 조 달	부모님 지원	3.025±.375		3.097±.418		2.825±.494		3.190±.624		3.679±.613	
	스스로 충당	3.111±.445	1.109	3.233±.379	3.379*	2.865±.666	.680	3.219±.773	.346	3.939±.699	1.538
	학교 장학금	3.221±.514		3.375±.464		3.059±.541		3.390±.605		3.745±.545	
	외부 장학금	3.044±.313		3.346±.486		2.838±.409		3.250±.518		3.619±.465	
출신고교	인문계	3.078±.372		3.113±.409		2.805±.522		3.214±.652		3.715±.630	
	실업계	3.008±.400	1.366	3.176±.446	-1.116	2.880±.501	-1.103	3.197±.614	.200	3.701±.600	.162
입학형태	수시전형	3.030±.366		3.162±.419		2.836±.502		3.189±.575		3.710±.600	
	정시전형	3.042±.431	.555	3.110±.466	.366	2.840±.557	.024	3.187±.728	.554	3.625±.635	2.522
	특별/농어촌	3.111±.347		3.151±.356		2.858±.444		3.316±.591		3.912±.589	

* p<0.05, ** p<0.01, *** p<0.001

대학환경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모두 전문 응급처치 프로그램 참가 그룹이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별로는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휴학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환경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생활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적응, 대학환경,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대학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거주형태, 통학거리, 등록금 조달 방법, 출신고교, 입학형태에 따라서는 이들 요인들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3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간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적응과 대학환경간의 상관계수가 0.72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적응은

사회적응과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과 가장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과 0.47로 비교적 높은 관계를 보였다. 반면 개인정서적응은 프로그램 만족도와 상관관계에서 Pearson의 상관계수가 -0.00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대학환경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와 관계에서 0.28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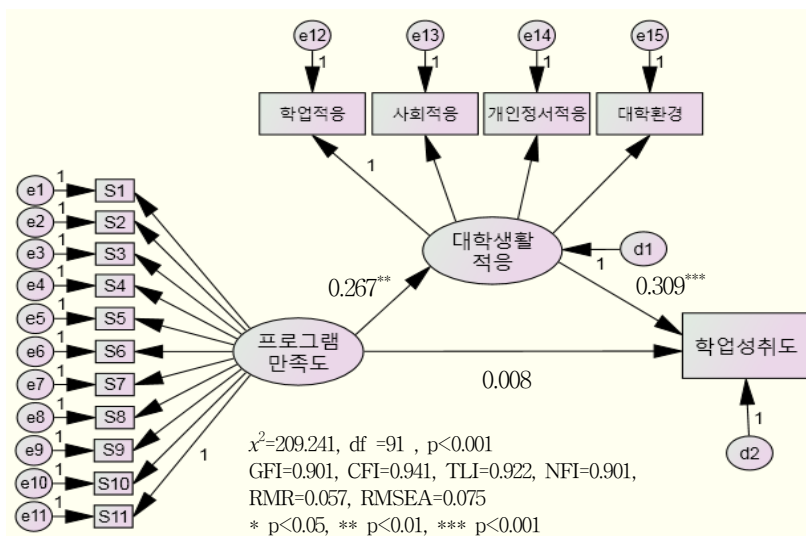
〈표 4〉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만족도
학업적응	1				
사회적응	0.60**	1			
개인정서적응	0.48**	0.37**	1		
대학환경	0.72**	0.57**	0.47**	1	
만족도	0.25**	0.27**	-0.03	0.28**	1

* p<0.05, ** p<0.01

3.4 경로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모델을 기초로 적합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209.241(p<0.001)$, GFI=0.901, CFI=0.941, TLI=0.922, NFI=0.901, RMR=0.057, RMSEA=0.075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방법에 제시한 적합도 평가기준과 비교할 때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경로분석 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그림 2].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표 5〉 가설검정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가설	가설검정
프로그램 만족도 → 대학생활 적응	0.246	0.267	0.075	3.291	0.001	가설 1	채택
대학생활 적응 → 학업성취도	1.471	0.309	0.340	4.325	<0.001	가설 2	채택
프로그램 만족도 → 학업성취도	0.037	0.008	0.300	0.123	0.902	가설 3	기각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두 변수간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267(CR=3.291,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의 실증분석결과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간 표준화 경로계수가 0.309(CR=4.325,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어 대학생활 적응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3〉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다’이다.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008(CR=0.123, p=0.9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기각되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도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증분석결과 이에 다르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건관련 전공 대학생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고 이는 학업성취도에도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대학생은 20세를 전후한 연령군으로 청년기에 속하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미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발달적 측면에서 많은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적응된 생활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까지 겹쳐 더욱 많은 심리적인 문제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상담시 받고 싶은 문제로 ‘진로 및 학업성적’(62%)이 가장 많았다[19]. 또한 이광용[20]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수준은 직업교육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 도달 수준에 비해 수리능력의 경우 현저히 낮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건계열학과들은 국가고시를 통하여 해당 전공 면허를 발급받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적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선행된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역할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답하였다[21]. 이처럼 보건계열학과는 대학생활 적응 중 학업적응이 타 학과보다도 요구되며 따라서 전공관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학과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별도 대학생활 적응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차이가 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군복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 보다는 있는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별 상관관계는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의 관련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고 다른 제 변수들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증분석결과 유의한 통계적 해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

응을 높이고 이는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가설은 채택되어 소기의 연구목적에 달성하였다.

신정철 등[22]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보완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단순한 성취도 상위-하위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별 조합에 의한 다층적 구조를 보여주는 이장익 등[23]의 연구에서는 학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업성취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차이가 있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학업성취도를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도록 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24].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지방 소재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대하거나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대상자 선별에 있어 보다 정교한 표본추출기법을 도입하여 추가 연구하였을 경우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취업과 관련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취업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 앞으로 학과 특성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수요자인 학생이 만족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찾아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대학생활 적응에도 이점이 있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학년에 맞는 단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3).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 [2] 김미경 (2008).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인지가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3] 오호영·이지연·윤희한 (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 Super, D. E. (1957). The stress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
- [5]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 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5(2), 47-60.
- [6] 이인학 (2007). 한국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및 발전방안에 대한 교수, 학생 만족도와 인식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7] 김재은·이은순·강순화 (1997). 한국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 [8] <http://cesi.kedi.re.kr/>
- [9] 김숙향 (2007).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 교육 및 법적 뒷받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10] 오범호 (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 요인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4), 153-176.
- [11] 한국학술진흥재단 (2009).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포물리지표 개발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연구.
- [12] 이현성 (2007). 전문대학생 취업진로지도 방안연구 : 오산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13] <http://www.kins.re.kr/main.do/>
- [14] <http://korealsa.or.kr/>
- [15] Baker, R. W.,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2), 179-189.
- [16] 허재홍·조용래 (2005). 자기 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17] 이성흠 (2005). 교육·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를 위한 평가범주와 질문지 개발준거. 교육공학연구, 21(3), 187-214.
- [18] Kim, S. S., Ryu, S. W. (2011).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o Adoption of

- Telehealth Servic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3), 71-96.
- [19] 김영화·이근·김나영 (2005). 200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19, 119-153.
- [20] 이광용 (2008). 전문대학생 기초학습능력 진단도구 적용 및 목표기준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 [21] 박소미·최은숙·김미숙·이경열 (2011).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취업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현황. 한국응급구조학회, 15(1), 66-78.
- [22] 신정철·정지선·신태수 (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3.
- [23] 이장익·김주후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1(2), 227-246.
- [24] 장상배·양해술 (2012). 중국유학생의 학습효과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11), 67-80.

성 열 훈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공학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공학석사)
- 201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물리공학(이학박사)
- 2011년 3월~현재 :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방사선영상학, 디지털 3 차원 의료영상, 디지털의료영상전송저장시스템.
- E-Mail : radimage@cju.ac.kr

김 성 수



- 1999년 2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사)
- 2001년 2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1년 7월~2012년 2월 : 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관리팀

- 2012년 3월~현재 :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정보, 보건통계, 의무기록, 임상연구
- E-Mail : mra7033@naver.co